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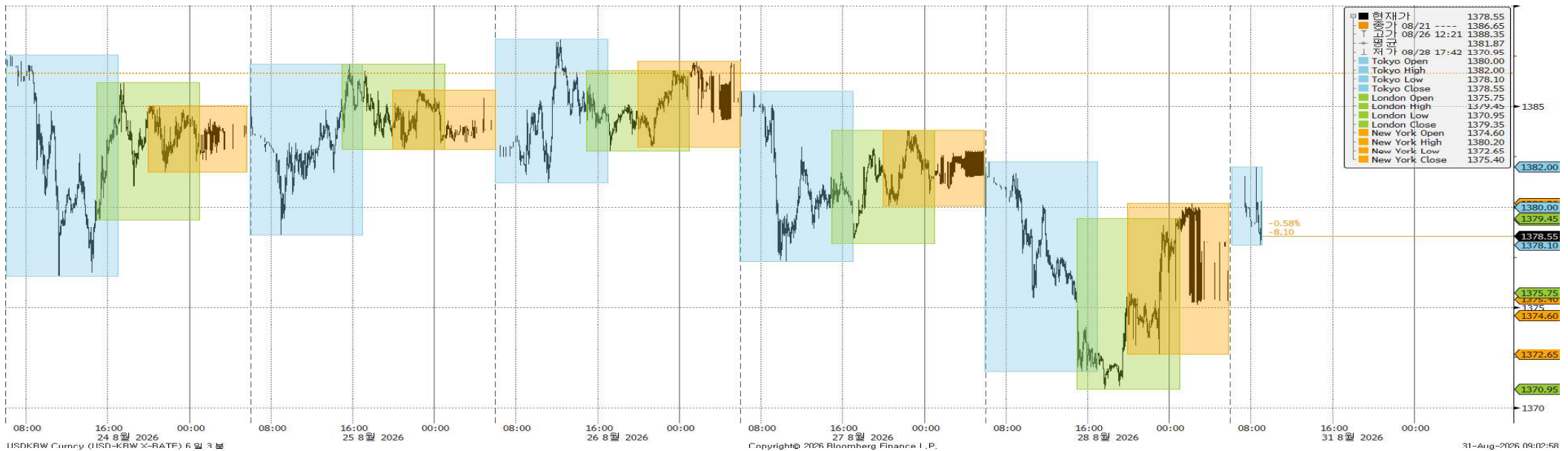


Hana FX Weekly Letters

2026. 8. 31

USD/KRW Weekly Market Trends (8/24~8/28)

종 목	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원화환율	1,387.0원	1,388.3원	1,371.0원	1,379.5원	-7.5원
NDF(종합)	1,385.4원	1,388.3원	1,380.7원	1,376.2원	-9.2원



주간 동향

- 주초, 미 재무부의 바이백 확대 효과에 대한 의구심으로 글로벌 달러 약세 나타난 가운데, 중공업체 수주 소식과 역내의 달러 매도세 등에 1,380원대 초반으로 하락 출발. 이후 미국의 캐나다 관세 압박 등 대외 리스크로 인해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되며 반등했으나, 중동 긴장 완화 기대감으로 유가가 하락하자 상승세 제한됨
- 중반, 미국 PCE물가 발표를 앞둔 경계감과 함께, 수입업체 결제수요 등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환율은 1,380원대 중반으로 상승
- 후반 들어, 8월 금통위 금리인상 결정 및 성장률·근원물가 전망치 상향 조정에 따른 원화 강세를 반영, 장중 1,370원 후반대까지 하락하는 등 하락세로 전환. 이어 주 후반, 수출업체 네고물량 등 매도 우위 수급 영향에 1,371원까지 낙폭을 키웠으나, 워시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다소 반등해 1,379.5원 마감

주간 전망: 1,370원~1,390원

- 금주 달러/원 환율은 연준 긴축 경계감에 따른 강달러와 지정학적 위험회피 심리 등에 상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
- 최근 잭슨홀 기조연설에서 워시 연준 의장은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를 강조하며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었음. 이로 인해 최근 둔화된 물가와 고용 지표로 다소 약화되었던 긴축 경계감이 다시 살아나며 글로벌 강달러 흐름이 나타남
- 또한,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로 중동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면서, 시장 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유입될 측면도 환율 상승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- 다만, 상단에서는 주요 반도체 기업 등 수출업체들의 꾸준한 달러 매도 물량이 유입되며 대외적인 상승 압력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판단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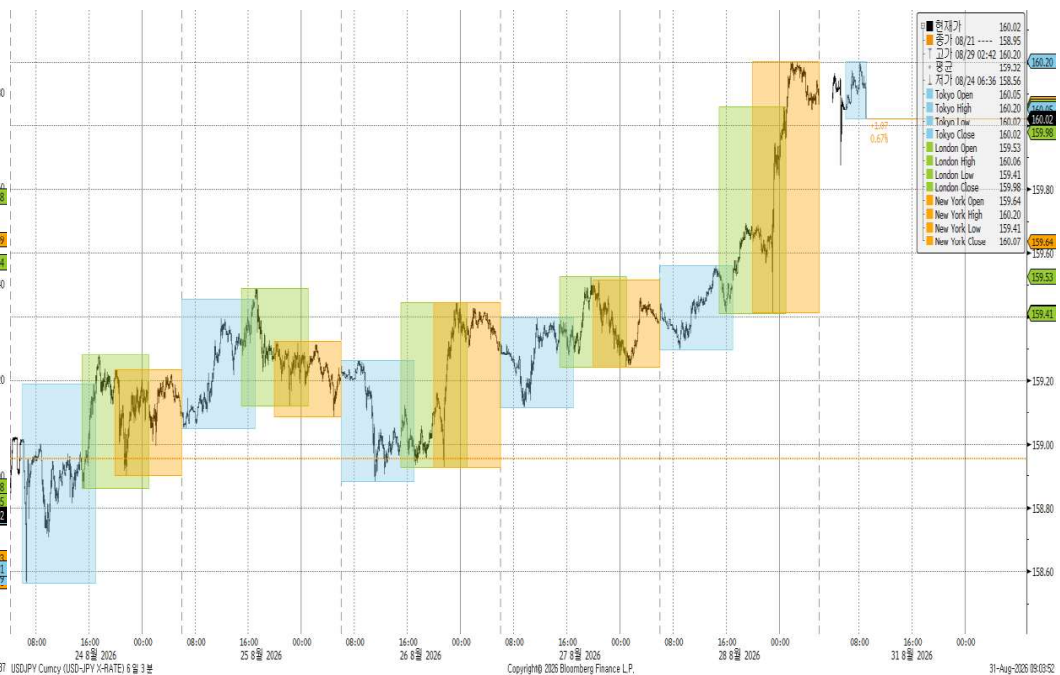
EUR/USD Weekly Market Trends (8/24~8/28)

종 목	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유로/달러	1.1679	1.1687	1.1578	1.1585	-0.0094



USD/JPY Weekly Market Trends (8/24~8/28)

종 목	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달러/엔	159.0	160.2	158.6	160.1	+1.1



유로화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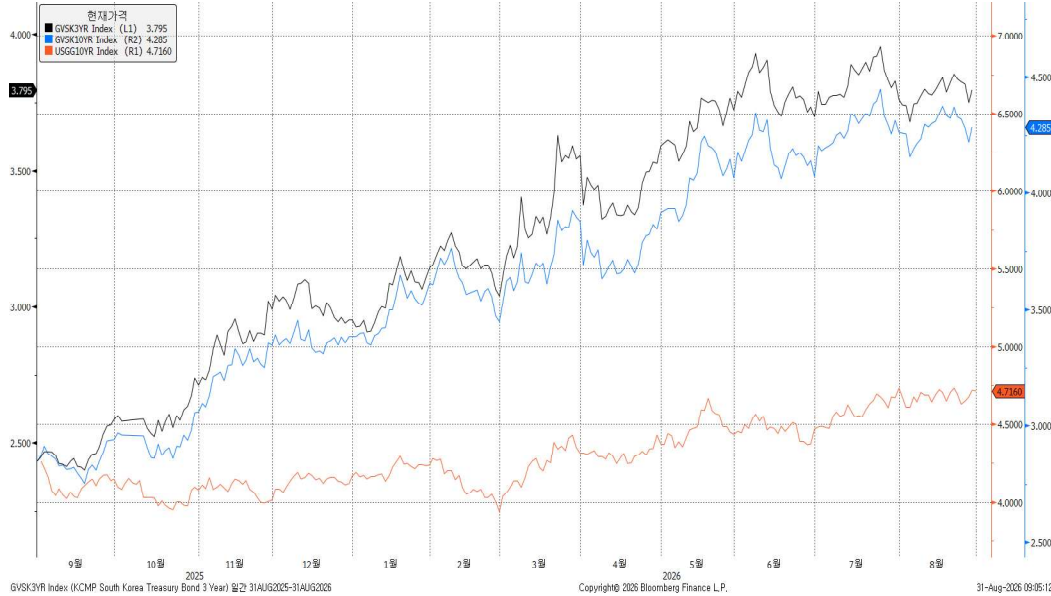
- 주초, 미국의 캐나다 관세 인상 예고와 대이란 경제 제재 발표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으로 유로화는 소폭 약세로 출발. 이후 미국과 이란의 협상 재개 기대감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한 데다, 독일의 GDP와 기업환경지수 등 경제지표가 개선된 모습을 보이면서 강세로 전환
- 중반,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강화 가능성 등 러-우 전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지정학적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큰 폭의 약세를 보임
- 후반,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관망 심리가 유입된 가운데, 독일의 9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보다 다소 개선되었다는 소식에 힘입어 소폭 강세를 나타냄. 이어 주 후반, ECB 정책 위원이 다음 달 회의에서 금리인상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평가하는 등 인플레이션 경계감을 드러냈으나, 워시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부각되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며 1.15달러대로 하락 마감

엔화 동향

- 주초, 미국의 이란 경제 제재 예고로 중동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, 국제유가가 변동성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우려 등이 겹치면서 엔화는 159엔대로 약세 출발. 이후 미-이란 간 합의 진전 가능성이 제기되며 유가가 하락 압력을 받았으나,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경계감 속에 엔화 약세 흐름 이어짐
- 중반 들어, 미 근원 PCE 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으나, 연준의 긴축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으며 엔화에 약세 압력으로 작용
- 후반, BOJ 부총재가 금리인상 필요성을 언급했으나, 시장이 기대했던 9월 긴축 신호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인식으로 엔화 약세 폭이 다소 확대됨. 이어 주 후반, 워시 연준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안정 목표를 강조, 이에 연준 긴축 기대가 강화된 데 따른 미 국채금리 상승과 미-일 금리차 지속 우려 등에 엔화 약세 심화되며 다시 160엔대 진입

KTB Weekly Market Movements (8/24~8/28)

종 목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국고채 금리 (3y)	3.836%	3.755%	3.788%	-0.07%p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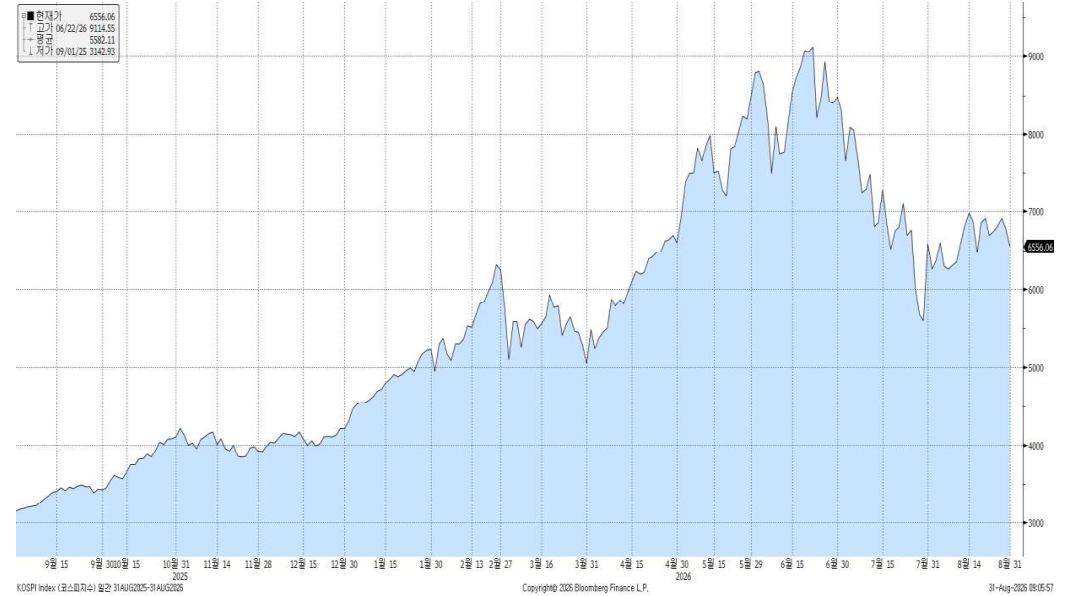
자료 : 블룸버그

주간 국고채 시장 동향

- 주초, 대외적 국제유가 하락 영향 반영되는 가운데 아시아 채권시장에서의 미국, 호주 등 주요국 국채 금리가 하락한 영향 등으로 하락 출발. 이어 한은 금통위에 대한 경계감이 작용하면서 뚜렷한 방향성이 부재했으나,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아시아장에서의 미 국채 금리가 강해지자 동조화 움직임 시현
- 중반 들어, 미-이란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짐 속 유가 하락 추세 지속 등으로 최근의 하락 추세 유효한 흐름 나타냈지만, 금통위에 대한 인상 경계감 등이 하단 지지한 국면
- 후반 들어, 한은 금통위가 시장 예상보다 도비시한 흐름 속 인상 결정으로 25bp 금리인상과 성장전망 상향 수정에도 큰 폭 하락한 양상 시현. 이어 주 후반, 잭슨홀에서 예정된 주말 연준 일정 등에 대한 경계감이 증폭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국채선물 매도 확대 등으로 국고채 금리 상승 전환하며 마감

KOSPI Weekly Market Movements (8/24~8/28)

종 목	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KOSPI	6,881.0pt	6,996.1pt	6,408.8pt	6,788.9pt	-124.0pt



주간 증시 동향

- 주초, 전주 후반의 삼성전자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되며 반도체 주요 업종들이 낙폭 확대하는 모습 속에 큰 폭 하락 출발. 이어 미국의 대이란 추가 경제 압박 조치와 시에 대한 규제 압박 등으로 뉴욕증시가 하락 하면서 코스피 투자심리 또한 악화했지만, 반도체 기업의 자사주 매입 영향 등에 따라 상승 전환
- 중반 들어, 미 주요 기술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며 코스피도 투자심리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으나, 장 후반, 자사주 매입 추정 자금 유입 등이 하단 지지하며 상승 전환
- 후반 들어,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뉴욕증시 상승 등을 반영 코스피도 견조한 흐름 보였으나, 이어진 한은 금통위의 금리인상 결정 등으로 상단 제한되는 모습 시현 후, 주 후반, 대외 뉴욕증시에서의 엔비디아 기술주의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, 국내 대형 반도체주의 하락 양상 및 잭슨홀 미팅 앞둔 연준 스탠스에 대한 경계감 강화 등이 투자심리 악화시키면서 하락 마감